

7개 대형서점서 '책잔치' 경연

'책의 날' 제정기념 연합도서축제 스케치

○...책이 있는 풍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황홀한 지적 충족감과 함께 분수에 넘치는 眼福을 누리는 행복감에 젖게 한다. 책방에 즐비한 책들에서 우리는 우리시대의 풍속사와 정신사를 읽고, 그리하여 그 책들이 태어나기까지의 수많은 사연들, 그 수고로움에 새삼스레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올해 첫 '책의 날'을 기념해 서울시내 7개 대형서점에서 일제히 열린 '연합도서축제'(10월24일~11월2일)는 그러한 고마움을 일깨우고 책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연합도서축제는 광화문의 교보문고를 비롯, 종로의 종로서적, 신문로의 중앙도서전시관, 신촌의 신촌문고, 을지로입구 지하의 을지서적, 강남전철역의 동화서적, 노량진 전철역전의 국민도서 등 7개 서점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각 서점은 제각기 입지환경의 특성에 맞추어 87 신간도서(교보), 종교서적(종로), 한국학도서(중앙), 사회과학도서(신촌), 직장인을 위한 도서(을지), 어린이 및 청소년도서(동화), 교양 및 실용도서(국민) 등 특정분야의 신간도서를 선뎠는 특설코너를 마련해 독자들의 눈길을 모았다.

○...이번 서점별 특별전시 중에서 가장 돋보인 곳은 을지서적. 을지로입구 내외빌딩 지하에 자리잡은 을지서적은 미려하게 고안된 7개의 진열대를 동원, '직장인을 위한 도서'들을 비즈니스북 베스트셀러, 교양, 경제·경영, 신앙교양, 레저, 처세의 7개 부문으로 분류해 전시했다. 다양한 목록, 풍부한 물량, 입체적인 디스플레이, 거기다 화려한 조명을 더해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살림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압도했다. 종로서적의 '종교서적 특별전'도 비록 진열규모는 작았지만 피라미트 입체 디스플레이로 독자들의 구매욕을 돋구었다.

○...강남지하철역 대우쇼핑타운에 자리잡은 동화서적은 통행인이 가장 많은 뉴욕제과 쪽과 목화예식장쪽 지하도입구에 도서축제를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어 통행인의 관심을 유도했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 및 청소년도서 특별전'은 서점의 스페이스 사정상 공유지인 복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진열에 제약이 많았다.

그밖에 교보문고, 신촌문고, 중앙도서전시관, 국민도서 등은 모두 平臺에 특설코너를 마련, 나름대로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였다.



을지서적의 '직장인을 위한 도서전'

이번 연합도서축제는 시중의

큰 서점들에서 일제히 열림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서점의 스페이스

제약, 전시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이번 도서축제는 시내 요소요소소에서 동시에 열림으로써 올해 처음 제정된 '책의 날'을 널리 알리는 데는 그런대로 성과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축제'의 성격을 부각시키기에는 미흡한 느낌을 주었다. 사전 준비가 충분치 못했던 탓도 있지만, 서점 스페이스의 제약과 전시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또 '책의 날'기념 실(Seal), 포스터와 스티커, 고객사은품, 장식용 三角旗 따위 기념물제작의 필요성과 전시 당일한 할인서비스 문제도 연구과제로 제기됐고, 다각적인 행사기획과 치밀한 사전 준비 아래 도서축제를 전국 지방도시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어쨌든 이번 연합도서축제는 시중의 큰 서점들이 '책의 날' 행사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서점의 문화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 그리고 이날이 출판계와 서점계의 공동축제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이 평가돼야 마땅하다는 衆評이다.

교보문고의 '87 신간도서전, 신촌문고의 사회과학도서전, 동화서적의 도서축제를 알리는 플래카드와 어린이·청소년도서전, 국민도서의 교양·실용도서전, 종로서적의 종교서적특별전 (위로부터).